

김영록 전남지사 “국립의대 공모, 전 도민 건강위해 공정하게”

초고속도로·전라선 고속철·기회발전특구 등 현안 총력 당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국립 의과대학 공모 추진은, 전 도민의 의과대학이자 전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이뤄지는 만큼 도민 뜻을 잘 살피고 협조를 구해 대응적 차원에서 공정하고 원활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4월 정례회의를 통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국립의대 신설 등 10가지 이상 지역 현안을 직접 말씀하셔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립의과대학 공모와 관련해 “당초 통합의과대학을 생각했는데, 대학들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시기적으로 빨리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어서 공모를 하게 됐다”며 “전 도민의 건강과 전남의 미래발전, 의료 관련 연구개발(R&D)사업 유치 등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함께 많이 고심해서

추진, 모처럼의 기회를 잘 활용하자”고 말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와 관련해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개념 고속도로로서 앞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역할도 기대된다”며 “도에서 기초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언급으로 국토부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속도로를 목표까지 연결하고, 종착지에 청년 테마파크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선 고속철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자꾸 고속화철도를 언급하는데, 대통령께서 고속화철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30분 이상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직선화를 관철해 명실상부한 고속철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아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그동안 첨단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고흥 우주국가산단에 11개 기업 입주협약, 무안 항공정비(MRO) 산단에 화합물반도체 7개 기업 투자협약, 여수 묘도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5개 기업과 투자협약, 순천에 에니메이션 엔지니어링 기업 업무협약 등 성과를 거뒀고, 4월 말 덴마크에서 세계 해상풍력 1위 기업인 베스타스와도 협약을 앞두고 있다”며 “대사에 ‘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향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교육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교육추진을 위해 힘차게 뛰자”고 다독였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수당 20만 원 지급 등 인구정책을 과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실행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출생수당 지급이 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새로운 시작, 봄의 힘찬 발걸음을 함께해요’란 주제로 열린 ‘공간과 소통을 위한 4월 정례회의’에 ‘당신의 시작을 응원해’란 꽃말의 프리지어 꽃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가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분발을 당부했다. 또 “육아 및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쓰는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간 서로 배려하고, 휴직에 대비해 정원을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밖에도 ▲챗지피티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업무 활용도 제고 ▲지난해 전국체전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역대급 메가이벤트 성공을 발판으로 3년간 추진하는 세계관광문화대전 추진에 만전 ▲봄철 대형 산불 예방과 발생 시 주변 주민 안전 최우선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 등을 당부했다. /서용운 기자

현대차, 택시 전용 모델 ‘쏘나타 택시’ 출시



현대자동차가 국내 내연기관 중형 세단 중 유일한 택시 전용 모델 ‘쏘나타 택시’를 3일 출시했다. 쏘나타 택시는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LPG 엔진과 변속기, 타이어를 적용했으며 넓어진 2열 공간

과 다양한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택시의 가혹한 주행 환경을 고려해 일반 차량 대비 약 2배 강화된 내구 시험 과정을 거쳤으며,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스마트스

트립 LPG 2.0 엔진과 택시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일반 타이어 대비 약 20% 내구성이 강화된 타이어를 적용했다.

또한 쏘나타 택시는 기존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대비 휠베이스를 70mm 늘려 더 넓은 2열 공간을 바탕으로 승객에게 보다 쾌적한 탑승 경험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쏘나타 택시의 안전 사양을 대폭 강화하고 최신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끌어올렸다.

쏘나타 택시는 ▲1열 에어백 ▲ 운전석 무릎 에어백 ▲1열/2열 사

이드 에어백 ▲전복 대응 커튼 에어백 등이 포함된 9 에어백 시스템과 ▲차로 유지 보조(LF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를 탑재하고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Software Update, Over-the-Air)를 적용해 더욱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쏘나타 택시는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며 선택 사양은 ▲스마트 크루

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포함)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항차·전면 대항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으로 구성된 현대 스마트센스와 1열 통풍시트 두 가지로 단순화돼 구성된다.

외장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 큐레이티드 실버 메탈릭 ▲팬텀 블랙 중 선택할 수 있다.

쏘나타 택시의 판매 가격은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 택시 기준 2천480만 원 ▲개인택시(간이과세자, 면세) 기준 2천254만 원부터 시작하며, 플랫폼 운송 사업자 및 영업용 택시 사업자에 한해 판매한다.

현대차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택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택시 용품 업체와 협업을 기존 택시 표시등과 차별화된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 택시 표시등’을 함께 선보인다.

스마트 택시 표시등은 기존의 택시 표시등과 빈차등을 하나로 통합시킨 제품으로 루프 중앙에 장착되는 기존 택시 표시등과 달리 조수석 B필러 위쪽의 루프 몰딩에 장착돼 세련된 느낌을 주며, 기존 택시 표시등 장착 시 루프 중앙에 구멍을 뚫어 생기는 차량의 잔존가치 훼손도 최소화했다.

스마트 택시 표시등은 기존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현대차가 디자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존 택시 표시등 업체가 개발과 제조, 판매를 담당한다. /이유빈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